

# 女性 下腹部 腫塊에 관한 文獻的 考察

김여옥\*, 이현경\*\*, 최은정\*\*\*

大韓醫療氣功學會

## I. 緒論

女性 下腹部의 腫塊는 女性의 性器 및 그 주위의 腫瘍 疾患을 말하는 것으로<sup>1)</sup> 韓方 文獻에서는 癥瘕, 腸覃, 石瘕, 血蠱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sup>2)</sup> 洋方에서는 惡性腫瘍과 良性腫瘍으로 分類하였는데 良性腫瘍에는 子宮筋腫, 卵巢囊腫, 子宮內膜炎 등이 있고 惡性腫瘍에는 子宮癌, 惡性絨毛上皮癌, 子宮肉腫 등이 있다.<sup>3)</sup>

현재 이 疾患들로 인해 苦痛 받는 患者의 發生頻度가 增加하면서 이에 따른 韓方 治療 依賴가 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뚜렷한 原因과 普遍化된 治療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sup>4)</sup>

이에 著者는 여러 韓方 文獻을 통하여 女性 下腹部의 腫塊의 病因 病理 및 症狀과 治療法에 대해 考察하여 후에 臨床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 II. 本論

宋炳基는 《漢方婦人科學》에서 腹腔內의 臟器 및 器官에 發生하는 有形的 病變을 內經 이후 여러 文獻에서 積聚, 癥瘕, 瘰癧, 痞塊, 腸覃, 石瘕, 血蠱 등으로 分類하여 類似的 病症으로 취급해 왔고 瘰癧는 心肺의 有形的 病變이고 積聚는 소화기계통의 病變이며 癥瘕는 下腹部의 病變이라 하였다. 또 癥瘕가 女性의 下腹部에 發生하는 고유한 腫塊를 막연하게 지칭한 것이라면 腸覃 石瘕 血蠱는 女性의 性器 및 그 주위에 發生하는 고유한 腫塊를 가리킨다 하였으며, 넓은 의미의 積聚는 그 性狀 및 形態에 따라 分類한 癥瘕, 腸覃, 石瘕, 血蠱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sup>5)</sup> 申鎭湜은 比較 醫學의 側面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癥瘕와 積聚를 同一類의 病症으로 본 입장에서는 대체로 肝 및 腸계통의 疾患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癥瘕와 積聚를 구별하여 보는 입장에서는 積聚가 대체로 癥瘕를 포함하고 있으며 점차 癥瘕의 病症을 下焦의 婦人科 疾患과 관련이 많다고 하였고 腸覃, 石瘕, 血蠱 등의 病症에 있어서는 腸覃은 卵巢腫瘍과, 石瘕는 子宮筋腫과, 血蠱는 子宮筋腫의

\* \*\* \* \* \* \* 大韓醫療氣功學會

- 1) 宋炳基: 漢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1994, p.254
- 2) 梁秀烈 외: 子宮筋腫의 治驗 1例, 大韓韓醫學會誌, Vol.11 No.1, 1990, p.33
- 3) 宋炳基: 前掲書, p.250
- 4) 梁秀烈 외: 子宮筋腫의 治驗 1例(II), 大韓韓醫學會誌, Vol.11 No.2, 1990, p.47

- 5) 宋炳基: 前掲書, pp.249~250

惡性變化한 것과 각각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6)</sup>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女性 下腹部의 腫塊는 현재의 女性 性器 腫瘍과 많은 관련이 있고 그 分類法으로 積聚, 癥瘕, 腸覃, 石瘕, 血蟲가 타당하며 이에 필자는 여러 문헌을 통하여 각각의 내용을 拔取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癥瘕와 積聚는 겹치는 부분이 많고 분리하여 설명하기 곤란하여 함께 묶었고 각각의 文獻은 대체로 연대순으로 실고자 노력하였다.

《黃帝內經》<sup>7)</sup>

腸覃何如 岐伯曰 寒氣客于腸外 與衛氣相搏 氣不得榮 因有所繫 瘕而內著 惡氣乃起 瘕肉乃生 其始生也 大如鷄卵 稍以益大 至其成也 如懷子之狀 久者離歲 按之則堅 推之則移 月事以時下 此其候也

(腸覃은 寒氣가 腸外에 머물러 衛氣와 치받으면 正氣가 運行하지 못하고 寒邪와 衛氣가 엉킴으로 인해 腹中에서 結塊가 形成되고 內部에서 점차 外部로 드러나며 더러운 氣가 이를 따라 나타나고 息肉이 發生하여 생기는 것이다. 처음 생겨날 때는 마치 鷄卵과 같으나 점차 커져서 병증이 發生할 때는 마치 아이를 뱀 것 같은 形象을 띠며 病程이 긴 것은 여러 해가 걸리고 손으로 患部를 누르면 단단하고 밀면 움직이며 月經은 정상적으로 온다.)

石瘕如何 岐伯曰 石瘕者 生于胞中 寒氣客于子門 子門閉塞 氣不得通 惡血當瀉不瀉 衄以留止 日以益大 狀如懷子 月事不以時下 皆生于女子 可導而下

(石瘕는 胞中에서 발생하는데 寒氣가 子宮入口에 侵入하여 子宮入口가 막히면 氣가 疏通되지 않고 惡血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함에도 빠져나가지 못하여 응결된 채 胞中에 머무르며 날로 커져 마치 아이를 뱀 것 같고 月經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는 모두 婦女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攻下시켜야 한다.)

《中藏經校注》<sup>8)</sup>

積聚癥瘕雜蟲者 皆五臟六腑眞氣失而邪氣併 遂乃生焉 久之不除也 或積或聚 或癥或瘕 或變爲蟲 其狀各異 有能害人者 有不能害人者 有爲病緩者 有爲病速者 由瘕者 有癥者 有生頭足者 有如抔塊者 勢類不同.

(積聚, 癥瘕, 雜蟲은 모두 五臟六腑의 眞氣가 失調된 狀態에서 邪氣를 感受하여 생긴 것으로 오래도록 除去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積, 聚, 癥, 瘕, 혹은 變하여 蟲을 이루게 되며 그 形狀이 각각 다르다. 사람을 害하는 것도 있고 사람을 害하지 않는 것도 있으며 病의 進行이 緩慢한 것도 있고 病의 進行이 急速한 것도 있으며 혹은 아프고 혹은 가렵고 혹은 頭足이 있고 혹은 덩어리와 같은 것도 있어 모두 같지 아니하다.)

癥有勞氣冷熱虛實風濕食藥思憂之十二名也 瘕有青黃燥血脂狐蛇螫之八名也.

(癥에는 勞, 氣, 冷, 熱, 虛, 實, 風, 濕, 食, 藥, 思, 憂의 열두가지 이름이 있고 瘕에는 黃, 燥, 血, 脂, 狐, 蛇, 螫의 여덟가지가 있다.)

《金匱要略》<sup>9)</sup>

6) 申鎮湜 : 比較 醫學的 側面에서 본 癥瘕의 疾病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東醫病理學會誌 Vol.1, 1984, p.69

7) 裴秉哲 譯 : 今釋 黃帝內經 靈樞, 서울, 成輔社, 1995, p.427

8) 華佗 : 中藏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35

9) 張仲景 : 金匱要略, 서울, 醫學研究社, 1996,

婦人宿有癥病 經斷未及三月 而得漏下不止, 胎動在臍上者 爲癥瘕害. 妊娠六月動者 前三月經水利時 胎也. 下血者 後斷三月衄也. 所以血不止者 其癥不去故也. 當下其癥, 桂枝茯苓丸主之.

(癥病을 앓고 있는 婦人이 月經이 停止한 지 三個月도 되지 않아서 子宮에서 出血하고 더욱이 斷續의으로 나와서 멈추지 않고 동시에 또 배꼽위의 腹部가 胎動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實은 癥病이 原因이다. 만일 妊娠六個月로서 때때로 胎動이 있고 게다가 妊娠三個月의 月經이 正常인 경우에는 胎兒이다. 지금 月經이 停止하여 三개월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도 또 子宮에서 出血하는 경우에는 衄이다. 子宮에서 出血하고 게다가 斷續의으로 나와서 멈추지 않는 것은 癥病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서 이 경우에는 癥病을 治療해야하며 桂枝茯苓丸으로 主治한다.)

《巢氏諸病源候論》10)

積聚癥結者 是五藏六府之氣 已積聚於內 重因飲食不節 寒溫不調 邪氣重沓 牢癥盤結者也 若久即成癥

(積聚癥結은 五臟六腑의 氣가 이미 안에 쌓여 있는데 飲食不節과 寒溫不調 등의 邪氣가 重感되어 단단한 덩어리를 이루어 오래 된 즉 癥을 이른다)

癥瘕者 皆由寒溫不調 飲食不化 與藏氣相搏結所生也 其病不動者 直名爲癥 若病雖有結瘕而 可推移者 名爲瘕瘕 瘕者假也 謂虛假可動也

(癥瘕는 모두 寒溫不調와 飲食不化와 함께 藏氣가 相搏하여 생기는 것으로 움직이

지 않는 것을 癥이라 하고 비록 움직더라도 밀면 움직이는 것을 癥瘕라 하였고 瘕는 거짓이며 虛假로 움직이는 것을 이른다.)

養生方導引法云 向晨去枕 正偃臥伸臂脛 瞑目閉口 無息極 張腹兩足再息 頃間吸 腹仰 兩足倍舉 欲自微息定 復爲之 春三夏五秋七 冬九 蕩滌五藏 津潤六府 所病皆愈 積聚者 張吸其腹熱乃止 癥瘕散破 卽愈矣

(양생방 도인법에 이르기를 새벽에 잠에서 깨어 바르게 엎드려 팔 다리를 편다. 눈은 감고 입은 다문 채로 숨을 깊이 쉬지 말며, 배와 양발을 펴서 다시 숨쉬고 잠깐 숨을 들이쉬고 배를 다리 쪽으로 더욱 들어 올린다. 스스로 조금 쉬고자 할 때 다시 반복한다. 봄에는 세 번, 여름엔 다섯 번, 가을엔 일곱 번, 겨울에는 아홉 번 한다. 오장을 蕩滌하고 육부를 적시니 병이 낫게 된다. 積聚는 그 腹熱을 張吸하면 이에 그치게 되고 癥瘕가 散破되니 곧 낫게 된다.)

《婦人養方大全》11)

婦人腹中瘀血者 由月經閉積 或產後餘血未盡 或風寒滯瘀 久而不消 則爲積聚癥瘕矣

(婦人的 배 가운데 생긴 瘀血은 月經이 나오지 않고 쌓여 생기기도 하고 혹은 産後에 남은 血이 다 없어지지 않아 생기기도 하며 혹은 風寒으로 瘀血이 머무른 것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아 積聚癥瘕를 形成한다.)

婦人癥痞 由飲食失節 脾胃虧損 邪正相搏 積於腹中 牢固不動 故名曰癥 得冷則作痛 冷入子藏則不孕 入胞絡則月水不通

(婦人的 癥痞는 飲食攝取에 있어 節度가 없고 脾胃가 損傷된 狀態에서 邪氣와 正氣가 相搏하여 배 가운데 쌓여 단단하고 움직

10) 巢元方:巢氏諸病源候總論, 北京, 昭人出版社, 1990, pp.4,7~9

11) 陳自明 著, 薛立齊 註:婦人養方大全, 台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92, pp.34~35,37~39

이지 앓는 것으로 이름하여 癥이라 한다. 冷을 얻게 되면 아프게 되고 冷氣가 子臟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신을 하지 못하며 胞絡에 들어가게 되면 月水가 不通하게 된다.)

婦人食癥 由臟腑虛弱 經行不忌 生冷飲食 或勞傷元氣所致

(婦人の 食癥은 臟腑가 虛弱한데 月經期間 중에 生冷한 飲食을 攝取하거나 혹은 元氣를 손상시켜 생기게 된다.)

婦人積年血癥 由寒溫失節 脾胃虛弱 月經不通 相結盤牢 久則腹脇苦痛

(婦人の 오래된 血癥은 寒溫失節과 脾胃 虛弱으로 인하며 月經不通過 함께 서로 뭉쳐서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며 오래된 즉 腹脇이 苦痛하게 된다.)

《婦人良方》校注補遺<sup>12)</sup>

產後血氣傷于臟腑 臟腑虛弱 爲風冷所乘 搏于臟腑 與血氣相結 故成積聚癥塊也

(産後에 血氣가 傷한 것이 臟腑에 이르러 臟腑가 虛弱한데 風冷이 臟腑에 侵入하여 積聚癥塊를 이루게 된다.)

夫新產有血與氣相搏而痛者 謂之癥 … 此由夙冷血氣不治 至產血下則少 故致此病也不急治則多成積結 妨害月水 經則否澀 重則不痛也

(出産한지 얼마 되지 않아 血氣가 相搏하여 아픈 것을 癥라 한다 … 이것은 오래된 冷血氣가 治療되지 않은 狀態에서 産血下에 이른 즉 양이 적게 되는 고로 이 病에 이르게 된 것이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積結을 이루어 月經을 妨害하여 否澀하게 되는데 重하면 痛症이 없다.)

《醫學正傳》<sup>13)</sup>

熱鬱而成痰 痰鬱而成癖 血鬱而成癥 食鬱而成痞滿 此必然之理也

(熱이 몰리면 痰이 생기고 痰이 몰리면 癖이 생기고 血이 몰리면 癥이 생기고 飲食이 몰리면 痞滿이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이다.)

治法皆當以順氣爲先 消積次之 故藥中多用 香附撫芎之類

(治法은 마땅히 順氣를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消積시킨다. 고로 주로 香附子와 蕪芎類를 多用한다.)

《丹溪心法附餘》<sup>14)</sup>

痞塊在中 爲痰飲 在右爲食一云痰積 在左爲血塊 氣不能作塊 成聚塊 乃有形之物也 痰與食積 死血而成也

(痞塊중에 가운데 있는 것은 痰飲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食積이며 왼쪽에 있는 것은 血塊다. 氣는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므로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것은 有形의 물체가 있는 것이니 痰과 食積과 死血로 이루어진다.)

積聚癥瘕 有積聚成塊 不能移動者 是癥 或有 或無 或上 或下 或左 或右者 是瘕

(積聚癥瘕는 쌓이고 모여 덩어리를 이루는 것인데 움직이지 않는 것을 癥이라 하고 혹은 있고 혹은 없고 혹은 위에 혹은 아래에 혹은 왼편에 혹은 오른편에 있는 것을 瘕라 한다.)

婦人有塊 多是血塊

(婦人の 몸에 생기는 덩어리는 대부분 血塊이다)

12) 陳自明 原著, 慙宗立 補遺, 薛己 校注: 婦人良方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534~536

13)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p.85~86

14) 朱丹溪: 新編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3, p.645

治塊 當降火 消食積 食積 卽痰也 行死血塊去 須大補 凡積病不可用下藥 徒損眞氣 病亦不去 當用消積藥 使之融化 則除根矣

(塊를 治療하고자 할 때는 마땅히 火를 내리고 食積을 消化시키야 한다. 食積은 痰이다. 또 死血을 뜯게 하고 塊가 사라진 후에는 반드시 크게 補해 주어야 한다. 대체로 積病에 泄瀉시키는 藥을 써서는 안 된다. 泄瀉시키는 藥을 쓰면 필요 없이 元氣만 傷하게 되고 病은 낫지 않는다. 積을 삭이는 藥을 써서 녹아 없어지게 해야 病의 뿌리가 저절로 없어진다.)

《醫學入門》 15)

癥瘕冷熱都是瘀 或因食積 或鬱怒

(癥瘕의 原因으로는 冷, 熱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瘀血로 인하며 혹은 食積 혹은 鬱怒로 인한다 하였다.)

癥者堅而不移 瘕者堅而能移

(癥이란 단단하면서 移動성이 없는 것이고 瘕란 단단하면서 移動성이 있는 것이다)

瘕比癥稍輕

(瘕는 癥보다 조금 輕하다.)

皆由產後 及經水行時 或飲食生冷 以致脾虛 與臟氣 相結 或七情氣鬱 生痰 皆必挾瘀血而後 成形

(모두 產後나 經水가 行할 때 혹은 生냉물을 飲食하여 脾虛에 이르러 臟氣와 相結해서 되거나 혹은 七情으로 인해 氣鬱하여 痰이 發生하여 되는 것이니 반드시 瘀血을 낀 뒤에 形象을 이루게 된다.)

癥瘕 疝癖 石瘕 腸覃 食癥 血癥 食瘕 血瘕 種種不一 盡皆痞塊之異名耳

( 癥瘕, 疝癖, 石瘕, 腸覃, 食癥, 血癥, 食瘕, 血瘕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일정하지 않

으나 모두 痞塊의 異名이다.)

經云 大腸移熱於小腸 小腸移熱於大腸 兩熱相搏則 血溢而爲伏瘕 月事不利 以此推之 癥瘕 皆有熱者...

(內經에 大腸의 熱이 小腸으로 移動하고 小腸의 熱이 大腸으로 이동하여 兩熱이 相搏한 즉 血溢하여 伏瘕가 되어 月經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癥瘕는 다 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腹痛經閉 如懷胎 面黃寒熱 夢無數

(症狀이 腹痛이 있으며 月經이 끊기고 마치 아이를 뱌 것과 같이 배가 부르며 面色은 黃色이며 寒熱이 往來하고 무수한 꿈을 꾀다.)

癥瘕得冷則發腹痛 支滿胸脇腰背相引 四肢疼痛 月事不調 如懷胎之狀 邪氣甚盛 令人恍惚 夜多異夢 寒熱往來 四肢不舉 陰中生瘡 甚者小便淋瀝 或兼帶下 小腹重痛 面色黃黑 人於子臟則絕產 入於胞絡則經閉

(癥瘕는 冷을 만나면 腹痛支滿하고 胸脇腰背가 서로 당기며 四肢가 疼痛하고 月經不調를 發生하는데 마치 아이를 뱌 形象이 되고 邪氣가 심히 盛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精神이 恍惚不明하게 한다. 또 밤에 異夢이 많게 되며 寒熱往來, 四肢不舉, 陰中生瘡하고 심하면 小便이 조금씩 축축하게 나오게 되며 혹은 帶下를 겸한다. 그리고 小腹重痛, 面色黃黑하게 되고 子宮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를 배지 못하게 되고 胞絡으로 侵入하게 되면 月經이 閉止가 된다.)

腸覃可按血自通

(腸覃은 눌러보면 만져지며 月經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다.)

腸覃乃寒氣客於大腸 與胃相搏 大腸爲肺傳送 肺主氣 氣得熱則行 得冷則凝 凝則清氣散而濁氣結而爲瘕

(腸覃은 寒氣가 大腸에 붙어 있어서 胃氣

15) 李挺 :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0, 外集卷三 pp.40-43

와 서로 抵抗하여 發生한 것이니 氣가 熱을 感受하면 流行하고 冷을 感受하면 凝기는 것이니 凝기면 淸氣가 홀어지고 濁氣가 몽쳐서 瘕가 된다.)

腸覃日久不已 瘕肉乃生 始如鷄卵 久如懷胎 按之堅 推之移 月事時下 或多或少 氣病而血未病也 宜二陳湯加香附以開之或香粉丸

(腸覃이 時日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굳살이나 혹이 發生하는데 처음에는 마치 鷄卵만 하다가 오래되면 마치 아이를 밴 것같이 되어 누르거나 만져 보면 단단하고 밀면 移動하며 月經은 때로 나오나 或多或少하니 氣가 病들고 血이 아직 病들지 않은 것이다)

石疝塞胞經無路

(石疝은 石瘕가 子宮口를 막아서 月經이 나올 길이 없는 것이다)

女子瘕瘕疝氣 發則腹痛 逆氣上衝 乃胞中損傷 瘀血結成 久則堅硬如石 塞於子門 大如懷胎 月事不下 乃先感寒氣而後 血壅不流所致

(女子의 瘕瘕와 疝氣는 發作하면 腹痛하며 逆氣가 上衝한다. 이것은 子宮內가 損傷하여 瘀血이 結成하기 때문이니 오래되면 단단하기가 돌과 같이 되고 子宮口를 막으며 크기가 마치 아이를 밴 것같이 되어 月經이 나오지 않는다. 까닭은 먼저 寒氣를 感受한 후에 피가 막혀서 흐르지 못해서 된 것이다.)

血蠱氣蠱堅如石 水蠱腫滿俱難治

(血蠱와 氣蠱는 단단하기가 마치 돌 같고 水蠱는 腫滿하여 마치 물이 고인 것 같으나 다 難治이다.)

蠱者三蟲聚而食血之象 卽瘕瘕之甚者 肚腹急硬如石 腫滿如水 乃瘀結胞門 或產後爲水與血搏

(蠱란 글자는 三蟲이 모여서 食血하는 모

양이니 즉 瘕瘕가 심한 것이다. 배가 急硬하여 마치 돌 같이 되거나 腫滿하여 마치 물이 고인 것 같은 것이니 이것은 瘀血이 子宮에 몽쳤거나 혹 産後에 물이 血과 抵抗하여 된 것이다.)

善治瘕瘕者 調其氣而破其血 消其食而豁其痰 衰其大半而止 不可猛功峻施 以傷元氣 寧扶脾正氣 待其自化 … 凡攻擊之藥 病重病受病輕胃氣受之而傷矣 或云 待塊消盡而後 補養則 胃氣之存也 幾希

(瘕瘕를 잘 治療하는 者는 그 氣를 고르게 하고 그 血을 破하며 食滯를 消化시키고 痰을 豁治하는데 반정도가 減해지면 그치고 猛峻한 藥으로 正氣를 傷하게 하는 것은 可하지 않으며 扶脾正氣하여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였다. 무릇 攻擊하는 藥은 病이 重하면 病 자체가 藥을 받지마는 病이 輕할 때는 胃氣인 元氣 자체가 받아 損傷하게 될 것이다.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積塊가 다 사라진 뒤에 비로소 補養을 한다면 胃氣의 存在가 많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萬病回春》16)

痞塊者一名瘕瘕 不能移動者是瘕塊 能移動者或左或右者是瘕塊

(痞塊를 一名 瘕瘕라 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瘕塊이고 능히 움직여 혹은 왼쪽에 혹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瘕塊라 한다.)

氣不能作塊成聚 塊乃是有形之物 痰與食積死血而成 … 中爲痰飲 左爲血塊 右爲食積

(氣는 덩어리를 이루지 못하며 덩어리는 형체가 있는 것으로 痰이나 食積이나 死血로 인해 생긴다. 가운데 있는 것은 痰으로 인하며 왼편에 있는 것은 血塊로 인하며 오

16) 龔廷賢：萬病回春，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9，p.173

른쪽에 있는 것은 食積으로 인한다.)

《普濟方》17)

夫婦人積聚病者 積者五臟所生 聚者六腑所成

(무릇 婦人積聚 중에서 積은 五臟에 생기는 것을 말하고 聚는 六腑에 생기는 것을 말한다.)

五臟之氣積 名曰積 六腑之氣聚 名曰聚也

(五臟의 氣積을 이름하여 積이라하고 六腑의 氣聚를 이름하여 聚라 한다.)

積者其病不離其部 聚者其病無有常處 皆由陰陽不和 風冷搏於臟腑 而生積聚也

(積이란 病은 그 자리를 移動하지 않으며 聚란 病은 일정한 자리가 없으며 모두 陰陽不和에 기인하고 風冷이 臟腑를 逼迫하여 積聚가 생기게 된다.)

婦人病積 於經久則令無子 亦令月水不通 所以然者 積聚起於冷氣 結入子臟 故令無子 若冷氣入於胞絡 冷搏瘀血 血冷則澁結 故令月水不通

(婦人の 積病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 자식이 없게 되고 또한 月經이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積聚는 冷氣에 기인하며 子臟에서 면치게 되면 자식이 없게 된다. 만약 冷氣가 胞絡에 들어 가게 되면 冷이 血을 치게 되고 血冷한 즉 澁結하여 月經이 나오지 않게 된다.)

《東醫寶鑑》18)

正傳：凡腹中有塊 不問積聚癥瘕 俱爲惡候 切勿視爲尋常 若脹滿已成 胸腹鼓急 雖倉扁復生 亦莫能救其萬一也

(배속에 痞塊가 있다면 그것이 積聚이거나 癥瘕이거나를 가릴 것 없이 다 좋지 못한 症狀이므로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이미 脹滿이 되어서 가슴과 배가 팽팽하게 썩길 때에는 비록 倉公이나 扁鵲이라도 만 명에 한 명도 살리지 못할 것이다.)

癥者徵也又精也 以其有所徵驗及久而成精萃也 瘕者假也又遐也 以其假借氣血成形及歷年遐遠之謂也

(癥이라는 것은 모인다는 뜻이며 또 알맹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면 精萃가 된다. 瘕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고 또 멀다는 뜻도 있는데 氣血을 거짓으로 빌어서 생기고 또 오래 간다는 것이다.)

入門：壯人無積 虛人則有之 皆由脾胃怯弱 氣血兩衰 四時有感 皆能成積

(積은 健康한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고 虛弱한 사람에게만 생긴다. 그러나 이것은 脾胃가 虛弱하고 氣血이 衰弱하면 사철 기후의 영향을 받게 되어 積이 생긴다는 것을 말한다.)

千金：腸覃石瘕血蠱見下 腸覃生於腸外月事時下 石瘕生於胞中月事不下

(腸覃, 石瘕, 血蠱는 下焦에 생긴다. 腸覃은 腸밖에 생기므로 이때는 月經을 제대로 한다. 石瘕는 자궁 속에 생기므로 이때에는 月經이 없어진다.)

又氣鬱而濕滯 濕滯而成熱 熱鬱而成痰 痰滯而血不行 血滯而食不消化 此六者皆相因而爲病者也

(또한 氣가 물리면 濕이 막히고 濕이 막히면 熱이 생기며 熱이 물리면 痰이 생기게 된다. 또한 痰이 막히면 血이 잘 돌지 못하고 血이 막히면 飲食이 잘 소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여섯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생긴다.)

東垣：治積 當察其所痛 以知其病有餘不足

17) 朱橐 等 編：普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第十冊 p.191  
18) 許浚：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雜病篇 卷之六 pp.169,179,183

可補可瀉 無逆天時 詳藏府之高下 如高者越之 結者散之 客者除之 留者行之 堅者削之 强者奪之 鹹以溼之 苦以瀉之 全眞氣樂補之 隨所利而行之 節飲食 慎起居 和其中外 可使必已

(積을 治療할 때에는 아픈 곳을 살펴보아서 虛實에 따라 補瀉를 달리 해야 한다. 그리고 自然의 法則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病이 든 藏府가 上焦에 있는 것인지 下焦에 있는 것인지를 區別하여야 한다. 上焦에 있는 것은 만하게 하고 맺혔으면 풀어지게 하고 침입한 것은 없애 버리고 머물러 있으면 들게 하고 굳은 것은 연하게 하고 강한 것은 약하게 하여야 한다. 잔 것으로 부드럽게 하고 쓴 것으로 瀉하고 眞氣를 온전하게 하는 藥으로 補하는 등 症狀에 따라 治療해야 한다. 그리고 飲食을 調節하고 日常生活을 알맞게 하여 몸의 안팎이 調和되게 해야 한다. 그러면 病이 반드시 낫는다.)

永類：治積聚 有化積消積換積磨積而無下積之說 皆不可直便取下 以傷胃氣也

(經에 積聚를 治療할 때에는 積을 녹이거나 積을 삭이거나 積을 밀어내거나 積을 없애지게 해야 한다는 말만 있고 積을 내린다는 말은 없는데 그것은 직접 泄瀉시키면 胃氣가 상하기 때문이다.)

得效：宿血滯氣 凝結爲癥瘕 腹中痞塊 堅硬作楚 當以破氣藥伐之 或以類相從

(굳은 피와 滯氣가 서로 엉켜서 생긴 癥瘕와 배 안에 생긴 痞塊로 뚱뚱하고 고통스러울때는 氣를 헤치는 藥을 써서 쳐야 한다. 혹 病과 서로 聯關이 있는 것으로 治療하는 方法도 있다.)

綱目：易老云 養正積自除 譬如滿座皆君子 縱有一小人自無容地而出 令人眞氣實胃氣強 則積自消矣 更能斷厚味 節色慾 戒暴怒 正思慮庶乎 萬全而無害

(易老가 正氣를 補하면 積은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을 비유해 말하면 은방 안의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만 나쁜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은 견뎌 낼 수 없어서 저절로 나가고 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眞氣가 든든하고 胃氣가 세면 積은 저절로 없어진다. 그 후에 기름진 음식을 적게 하고 성생활을 조심하며 지나치게 怒하거나 기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건강해져서 아무런 병도 생기지 않는다.)

入門：若遽以磨積破結之藥治之 疾似去而人已衰矣 治法當先補虛 使氣血壯則積自消 宜用木香枳殼丸

(이때에 만약 急하게 積을 삭이고 몽친 것을 헤치는 藥을 쓰면 病이 낫는 것 같지만 몸은 더 약해진다. 治療하는 方法은 다음과 같다. 먼저 虛한 것을 補하여 氣血을 든든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積이 저절로 없어지는데 이런데는 木香枳殼丸이 좋다.)

丹心：凡攻擊之藥 有病則病受之 無病則胃氣受傷 胃氣者清純沖和之氣也 惟與穀肉菜果相宜 蓋藥石皆偏勝之氣 雖參芪性亦偏況攻擊者乎

(대체로 치는 성질이 있는 藥을 病이 있을 때 쓰면 病을 치게 되지만 病이 없을 때 쓰면 胃氣가 傷한다. 胃氣는 본래 맑고 순수하고 순조로운 기운이므로 쌀, 고기, 채소, 과일들이 그 性味에 맞는다. 직접 病을 治療하는 藥들도 다 氣運을 치우쳐 盛하게 한다. 비록 人蔘이나 黃芪 같은 좋은 藥들도 다 氣運을 치우쳐 盛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치는 性質이 있는 藥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得效：治息積 以兩手拇指 壓無名指本節作拳 按髀跏坐 叩齒三十六 屏氣二十一息 嚥氣三口再屏息再嚥如是三作 以氣通爲效 遇子午卯酉時則行



(息積을 治療하는 方法은 양 엄지손가락으로 약손가락 밑마디를 누르면서 주먹을 쥐고 발등이 맞은편 허벅지 위에 놓이도록 앉아서 36번 이를 두드리고 21번 숨쉴 동안 만큼 숨을 쉬지 않고 입안의 공기를 세 번 삼키기를 세 번 반복한다. 이와 같이 하여기가 통하면 효과가 있는데 밤 12시와 낮 12시, 오전 6시와 오후 6시에 해야 한다.)

《景岳全書》<sup>19)</sup>

癥者成形而堅硬不移者是也 瘕者無形而可聚可散者是也

(癥이라는 것은 形을 이루어 堅硬不移하는 것이며 瘕는 形이 없이 可聚可散하는 것이라 하였다.)

成形者 或由血結 謂之血癥 或有食結 爲之食癥

(形을 이루는 것 중에 血結로 인한 것은 血癥이라 하고 食結로 인한 것은 食癥이라고 한다.)

又有痛者 有不痛者 痛者聯於氣血 所以有之 氣血行則愈 故痛者易治 不痛者 不通氣血 另結窠囊 藥食難及 故不通者難治 此又治之有辨也

(아픈 경우와 아프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아픈 것은 氣血과 聯關이 있으며 氣血이 行하게 되면 낫는다. 고로 아픈 경우는 易治라 하였고 아프지 않은 것은 氣血이 통하지 않아 멍쳐 窠囊을 이룬 것으로 藥食이 미치지 어려워 아프지 않은 자는 難治라 하였다.)

血癥: 瘀血留滯作癥 惟婦人有之 其證則或由經期 或由產後

(血癥이란 瘀血이 留滯하여 癥을 이루는데 오직 婦人에게 있다. 그 證은 혹은 月經

期間 중에 혹은 產後에 생긴다.)

凡內傷生冷 或外受風寒 或恚怒傷肝 氣逆而血留 或憂思傷脾 氣虛而血滯 或積勞積弱 氣弱而不行 總由血動之時 餘血未淨 而一有所逆 則留滯日積 而漸以成癥矣

(안으로 生冷物에 傷하거나 혹은 밖으로 風寒에 傷하거나 혹은 슬퍼하거나 화를 넘으로 인해 肝에 損傷이 와서 氣가 逆行하고 血이 머무르거나 혹은 憂思로 脾를 傷하여 氣虛로 血滯하거나 혹은 疲勞하고 약해져서 氣虛하여 循環이 잘 안되어 생기는데 모두 血이 動할 때 餘血이 未淨한데 다시 逆하는 바가 있어 머물러 쌓이는 고로 점차 癥을 이루게 된다.)

治血則或功或補皆當以調氣爲先

(血을 治療하고자 할 때는 혹은 功하고 혹은 補하는데 마땅히 調氣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維謙補曰 養正邪自除 必先調養 使營爲充實 若不消散 方可議下 但除之不以漸 必有顛覆之害

(調養하여 營衛가 充實하게 되면 邪氣가 저절로 사라지게 되나 만약 消散되지 않는다면 下法을 쓰게 되는데 점차로 하지 않으면 害가 된다하였다.)

養正之法 當察陰陽上下 病之久新 及邪正強弱之勢 其有停瘀雖甚 而元氣困弱者不可功 病久而弱積難搖動者不可功 凡此之類 皆當專固根本以俟其漸磨漸愈 乃爲良策

(養正의 法을 使用하고자 할 때는 마땅히 陰陽, 上下, 病의 新久, 正邪의 強弱을 살펴야 한다. 瘀血이 머물러 있는 것이 비록 심하더라도 元氣가 弱한 경우에는 下法을 쓰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병이 오래되어 정기가 약하고 積塊가 요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攻下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무릇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根本을 堅固히 하

19)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p.64~66

고 점차로 消磨 시켜 治療시키는 것이 上策 이라 하였다.)

《辨證奇聞》<sup>20)</sup>

人有肝氣甚鬱 結成氣塊 在於左脇之中 左腹之上 動則痛 靜則寧 歲月既久 日漸壯大 面色黃穢 吞酸吐痰 時無休歇 人以爲痞塊之症也. … 夫肝木之性 最喜飛揚 不喜閉滯 肝氣一鬱 必下極於脾胃 而脾胃受肝木之極 則氣不能暢行於臟腑 遇肝之部位 必致阻滯而不敢行. 日積月累 無形而化爲有形之像. … 治之法 舒其肝中之鬱 助其脾胃之氣 則有形仍化爲無形矣. 倘見有形誤認爲食 而妄用消食之藥 誤認爲血 而輕施敗血之丹 則脾胃之氣大傷 而肝之鬱仍不能解. … 方用平肝消癥湯治之.

(肝氣가 심하게 鬱結되어서 氣塊를 결성 하니 左脇之中과 左腹之上에 있어서 움직이면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 날로 점점 장대해지고 面色은 黃穢하고 吞酸, 吐痰하는 것이 쉬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것을 痞塊之症이라 한다. … 무릇 肝木의 성질은 飛揚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閉滯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肝氣가 한 번 鬱結되면 반드시 밑으로 脾胃를 췌하게 된다. 脾胃가 肝木의 췌함을 받게 되면 氣가 臟腑를 원활하게 行하지 못하게 되어 肝이 있는 部位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阻滯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한다. 날로 쌓이고 달로 더해져서 형체가 없던 것이 형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 그것을 치료하는 법은 肝中에 鬱한 것을 舒暢시키고 脾胃의 기운을 돕게 되면 형체가 있던 것이 변화하여 무형으로 될 것이다. 형체가 있는 것을 食鬱로 誤認하여 消食之藥을 妄用 하거나,

血證으로 보아서 敗血之丹을 가볍게 쓰면 脾胃之氣가 크게 손상받고 肝의 鬱結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처방은 平肝消癥湯으로 치료한다.)

《醫宗金鑑》<sup>21)</sup>

五積六聚分藏府 七癥八瘕氣血凝 癥積不動 有定處 瘕聚推移無定形

(다섯 가지의 積과 여섯 가지의 聚는 臟腑로 나뉘어 지며 癥積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固定되어 있으며 瘕聚는 밀면 밀리고 고정된 자리가 없다.)

《葉天士女科》<sup>22)</sup>

腸覃亦經行時 寒氣陰戶 客於大腸 以致血凝 經水行而血少 其腹漸大 亦如有孕 俗名胎漏 其婦壯盛 半年自除 若虛弱者 必成脹滿 宜服桂枝桃仁湯

(腸覃은 經行時에 寒이 陰戶로 入하여 大腸에 머무르게 되면 血凝하게 되며 經이 비록 行하더라도 血少하고 배는 점차 커져서 妊娠한 것 같다. 소칭 胎漏라고도 하며 壯盛한 婦人은 半年이면 낫고 虛弱者는 脹滿하게 되며 桂枝桃仁湯이 마땅하다 하였다.)

石瘕因經來之後 寒入陰戶 客於胞宮 血凝不行 而腹漸大 如有胎孕在 壯盛之婦半年之候 氣力強健 不治自消 若虛弱者 必成腫脹 宜加味溫經湯

(經後에 寒이 陰戶로 入하여 胞宮에 머물러 血凝不行한 까닭으로 배가 점차 커져 妊娠한 것과 같게 되는데 壯盛한 婦人은 半年 후에 저절로 낫게 되고 虛弱한 婦人은 반드시 腫脹을 이룬다 하였으며 血海로 寒氣가

20) 清錢松：辨證奇聞，서울，杏林書院，1982，p.206

21) 吳謙 等編：醫宗金鑑，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p.38

22) 傅青主，葉天士：傳青主男女科 葉天士女科，서울，大成文化社，1992，p.203

沖한 즉 血滲不行하여 癥를 이루게 되어 아프게 된다 하였다.)

《婦科雜病》<sup>23)</sup>

女子癥瘕 多因產後惡露未淨 凝結于衝任之中 而流走之新血 又曰凝滯其上以附益之 遂漸積而爲癥瘕矣.

(女子의 癥瘕病은 대개 產後에 惡露가 다 나오지 않고 衝任에 凝結되어 流走하던 新血이 거기에 붙어 마침내 점차 쌓여서 癥瘕를 이룬 것이다.)

《晴崗醫鑑》<sup>24)</sup>

治療는 調氣 驅瘀, 破結, 軟堅의 治制를 써서 癥結된 것을 解消시키는 것과 補氣 活血로서 氣聚 血滯를 防止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餘》에서는 不能移動者를 癥이라 하였고 或有 或無 或上 或下 或左 或右하여 定處가 없는 것을 瘕라 하였다.<sup>26)</sup> 《醫學入門》에서는 堅而不移를 癥이라 하였고 堅而能移를 瘕라 하였으며 瘕가 癥보다 가벼운 병이라 하였다.<sup>27)</sup> 《萬病回春》에서는 不能移動者를 癥이라 하였고 能移動者를 瘕라 하였다.<sup>28)</sup> 《東醫寶鑑》에서는 癥은 徵이며 精이라 하였고 오래되면 精萃가 된다하였으며 瘕란 거짓이며 멀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 氣血을 빌어서 생기고 오래간다고 하였다.<sup>29)</sup> 《景岳全書》에서는 癥이란 堅硬不移라 하였고 瘕는 無形而可聚可散이라 하였다.<sup>30)</sup> 《醫宗金鑑》에서는 癥積은 不動有定處라 하였고 瘕聚는 推移無定形이라 하였다.<sup>31)</sup> 이상을 살펴 보면 癥은 不動하며 瘕는 移動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일치하나 瘕에 대해선 오래간다, 단단하다, 무형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다.

### III. 考察

#### 2. 分類

本論에서 여러 한방 문헌을 통하여 女性 下腹部의 腫塊를 韓方的 分類法에 따라 癥瘕, 腸覃, 石瘕, 血蠱의 각각의 내용을 문헌별로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女性 下腹部 腫塊를 概念, 分類, 病因 病理, 症狀, 治法의 順으로 재정리하여 共通點 및 時代別 흐름에 따라 살펴보려고 한다.

《醫學入門》에서는 痞塊를 癥瘕, 痰癖, 石瘕, 腸覃, 石瘕, 血瘕, 食瘕, 血瘕로 分類하였고<sup>32)</sup> 《萬病回春》에서는 痞塊를 癥瘕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sup>33)</sup> 《景岳全書》에서는 原因에 따라 血瘕와 食瘕으로 區別하였고 有痛者는 易治하고 不痛者는 難治라 하여 痛症有無로 區別하기도 한다.<sup>34)</sup>

#### 1. 概念

癥과 瘕를 각각 區別하여 놓았는데 《諸病源候論》에는 癥이란 不動하는 것이며 瘕란 可動하는 것이라 하였고<sup>25)</sup> 《丹溪心法附

26) 朱丹溪：前揭書，p.645

27) 李梴：前揭書，p.40

28) 龔廷賢：前揭書，p.173

29) 許浚：前揭書，p.183

30) 張介賓：前揭書，p.64

31) 吳謙等：前揭書，p.38

32) 李梴：前揭書，p.40

33) 龔廷賢：前揭書，p.173

34) 張介賓：前揭書，p.64

23) 張奇文：婦科雜病，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5，p.103

24) 金永勳：晴崗醫鑑，서울，成輔社，1995，p.404

25) 巢元方：前揭書，p.7

### 3. 病因病理

#### 1) 癥瘕

《中藏經校注》에서는 積聚, 癥瘕, 雜蟲은 모두 五臟六腑의 眞氣가 失調되 狀態에서 邪氣를 感受하여 오래도록 제거되지 않아 생긴다 하였으며<sup>35)</sup> 《諸病源候論》에서는 五臟六腑의 眞氣가 이미 안에 쌓여 있는데 飲食不節과 寒溫不調 등의 邪氣가 重感되어 단단한 덩어리를 이루어 오래되면 癥을 이룬다 하였고 癥瘕는 모두 寒溫不調와 飲食不化와 함께 藏氣가 相搏하여 생긴다 하였다.<sup>36)</sup> 《婦人養方大全》에서는 婦人腹中の 瘀血은 月經이 나오지 않고 쌓여 생기기도 하고 혹은 產後에 남은 어혈이 다 없어지지 않아 생기기도 하고 혹은 風寒으로 瘀血이 머무른 것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아 積聚 癥瘕를 形成한다 하였고 婦人 癥瘕는 飲食失節로 脾胃虧損된 상태에서 邪氣와 正氣가 相搏하여 생긴다 하였으며 부인의 食癥은 臟腑가 虛弱한데 月經期間 중에 生冷한 飲食을 攝取하거나 元氣를 損傷시켜 생긴다 하였으며 婦人의 血癥은 寒溫失節과 脾胃虛弱으로 생긴다 하였다.<sup>37)</sup> 《婦人良方校注補遺》에서는 產後에 血氣가 상한 것이 臟腑에 이르러 臟腑가 虛弱한데 風冷이 臟腑에 侵入하여 積聚癥塊를 이루게 된다 하였으며 出產 후에 風冷血氣로 인하여 血과 氣가 相搏한 즉 생긴다 하였고<sup>38)</sup> 《醫學正傳》에서는 血이 물리면 癥이 생긴다 하였다.<sup>39)</sup> 《醫

學入門》에서는 癥瘕는 모두 瘀血로 인하여 혹은 食積 혹은 鬱怒로 인한다 하였고 모두 產後나 經水가 行할 때 혹은 生冷物을 飲食하여 脾虛에 이르러 臟氣와 相結해서 되거나 혹은 七情으로 인해 氣鬱하여 痰이 發生하여 되는 것이니 반드시 瘀血을 낀 다음에 생긴다 하였고 大腸과 小腸의 熱이 相搏하여 血溢한 즉 伏癥를 이룬다 하였다.<sup>40)</sup> 《萬病回春》에서는 痰과 食積, 死血이 癥瘕를 이룬다 하였으며<sup>41)</sup> 《景岳全書》에서는 瘀血이 留滯하여 癥을 이루는데 오직 婦人에게 있다 하였으며 그 證은 月經期間 중에 혹은 產後에 생긴다 하였고 안으로 生冷物에 傷하거나 혹은 밖으로 風寒에 傷하거나 혹은 슬퍼하거나 화를 냄으로써 인하여 肝에 損傷이 와서 氣가 逆行하고 血이 머무르거나 혹은 憂思로 脾를 傷하여 氣虛로 血滯하거나 혹은 疲勞하고 弱해져서 氣虛하여 循環이 잘 안되어 생기는데 모두 血이 動할 때 餘血이 未淨한데 다시 逆하는 바가 있어 머물러 쌓이는 고로 점차 癥을 이루게 된다 하였다.<sup>42)</sup> 이상을 살펴보면 癥瘕積聚는 臟腑의 眞氣가 虛弱한 狀態에서 飲食失調나 寒溫不調나 七情損傷을 겸하여 發生함을 알 수 있다. 飲食失調는 주로 脾胃가 虛弱한 狀態에서 生冷物을 攝取하여 發生한다고 하였다. 寒溫不調는 風冷感受와 大小腸의 熱이 相搏하여 된 熱로 인한 경우도 언급하였다. 七情損傷에 있어서는 怒氣와 憂思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였으며 婦人에게 주로 일어남을 강조하였고 그 時期로는 月經期間 중이나 產後에 血이 動하는 때라 하였고 모두 痰飲, 食積, 死血로 有形의 덩어리를 이룬다 하였다.

35) 華佗：前掲書，p.35

36) 巢元方：前掲書，pp.4,7

37) 陳自明 著，薛立齋 註：前掲書，pp.34~35, 37~39

38) 陳自明 原著，態宗立 補遺，薛己 校注：前掲書，pp.534~536

39) 虞搏：前掲書，p.85

40) 李梴：前掲書，pp.40~41

41) 龔廷賢：前掲書，p.173

42) 張介賓：前掲書，p.65

## 2) 腸覃

《黃帝內經》에서는 腸覃은 寒氣가 腸外에 머물러 衛氣와 치받으면 正氣가 運行하지 못하고 寒氣와 衛氣가 엉킴으로 인해서 생긴다 하였고<sup>43)</sup> 《醫學入門》에서는 寒氣가 大腸에 붙어 있어서 胃氣와 서로 抵抗하여 발생한다 하였고<sup>44)</sup> 《葉天士女科》는 經行時에 寒이 陰戶로 入하여 大腸에 머물러 血凝하여 생긴다 하였다.<sup>45)</sup> 이상을 살펴보면 주로 寒邪로 인한 血凝을 原因으로 들고 있다.

## 3) 石瘕

《黃帝內經》에서 石瘕는 寒氣가 子宮入口에 侵入하여 子宮入口가 막히면 氣가 疏通되지 않아 惡血이 凝結되어 胞中에 머물러 생긴다 하였다.<sup>46)</sup> 《葉天士女科》에서는 寒이 陰戶로 入하여 胞宮에 머물러 血凝不行하여 생긴다 하였다.<sup>47)</sup> 이상을 살펴보면 石瘕의 原因도 腸覃과 마찬가지로 寒氣에 의한 血凝을 주로 들고 있다.

## 4) 血蠱

《醫學入門》에는 血蠱란 瘀血이 子宮에서 뭉쳤거나 産後에 물이 혈과 저항하여 된 것이라 하였다.<sup>48)</sup>

## 4. 症狀

### 1) 瘕瘕

《醫學入門》에는 瘕瘕는 腹痛이 있으며 月經이 끊기고 마치 아이를 밴 것과 같이

배가 부르며 面色은 黃色이며 寒熱이 往來하고 무수한 꿈을 꾸다고 하였고 冷을 만나면 腹痛支滿하고 胸脇腰背가 서로 당기며 四肢가 疼痛하고 月經不調를 發生하는데 마치 아이를 밴 形象이 되고 邪氣가 심히 盛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精神이 恍惚不明하게 된다 하였다. 또 밤에 異夢이 많게 되며 寒熱往來, 四肢不舉, 膈中生瘡하고 심하면 小便이 조금씩 축축하게 나오게 되며 혹은 帶下를 겸한다. 그리고 小腹重痛, 面色黃黑하게 되고 子宮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를 배지 못하게 되고 胞絡으로 侵入하게 되면 月經이 폐지된다 하였다.<sup>49)</sup> 《普濟方》에서는 婦人의 積病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 자식이 없게 되고 또한 月經이 나오지 않게 된다 하였고 그러한 까닭에 積聚는 冷氣에 기인하며 子臟에서 뭉치게 되면 자식이 없게 된다 하였으며 만약 冷氣가 胞絡에 들어가게 되면 冷이 血을 치게 되고 血冷한 즉 凝結하여 月經이 나오지 않게 된다 하였다.<sup>50)</sup>

## 2) 腸覃

《醫學入門》에는 腸覃은 눌러보면 만져지고 月經이 스스로 나오는 것인데 時日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衄살이나 흑이 발생하여 처음에는 마치 鷄卵만 하다가 오래되면 마치 아이를 밴 것과 같이 되어 누르거나 만져 보면 단단하고 밀면 이동하며 月經은 때로 나오나 或多或少하니 氣가 病들고 血이 아직 病들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sup>51)</sup> 《葉天士女科》에는 腸覃은 血凝한 것이 점차 커져 배가 妊娠한 것과 같이 커진다 하였다.<sup>52)</sup>

43) 裴乘哲 : 前掲書, p.427

44) 李挺 : 前掲書, p.42

45) 傳青主, 葉天士 : 前掲書, p.203

46) 裴乘哲 : 前掲書, p.428

47) 傳青主, 葉天士 : 前掲書, p.203

48) 李挺 : 前掲書, p.43

49) 上掲書, pp.40~41

50) 朱櫛 等 : 前掲書, p.191

51) 李挺 : 前掲書, p.42

52) 傳青主, 葉天士 : 前掲書, p.203

### 3) 石瘕

《黃帝內經》에는 惡血이 凝結된 채로 胞中에 머물러 날로 커져 마치 아이를 뱀 것과 같고 月經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였고<sup>53)</sup> 《醫學入門》에는 女子의 癥瘕와 疝氣는 發作하면 腹痛하며 逆氣가 上衝하며 이것은 子宮內가 損傷하여 瘀血이 結成하기 때문이니 오래되면 단단하기가 돌과 같이 되고 子宮口를 막으며 크기가 마치 아이를 뱀 것과 같이 되어 月經이 나오지 않는다 하였으며<sup>54)</sup> 《葉天士女科》에는 血塊가 점차 커져 배가 妊娠한 것처럼 되며 虛弱한 부인은 낫지 않고 腫脹을 이룬다 하였다.<sup>55)</sup>

### 4) 血蠱

《醫學入門》에는 血蠱란 癥瘕의 甚한 것으로 배가 急硬하여 마치 돌 같이 되거나 腫滿하여 마치 물이 고인 것 같다 하였다.<sup>56)</sup>

## 5. 豫後

### 1) 癥瘕

《醫學正傳》에서 배속에 痞塊가 있다면 그것이 積聚이거나 癥瘕이거나를 가릴 것이 없이 다 좋지 못한 증상이므로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되며 이미 脹滿이 되어서 가슴과 배가 팽팽하게 썩길 때에는 비록 倉公이나 扁鵲이라 하여도 살리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sup>57)</sup>

### 2) 腸覃

《葉天士女科》에서 腸覃은 壯盛한 婦人

의 경우에는 반년이면 낫고 虛弱한 부인의 경우에는 낫지 않고 脹滿하게 된다 하였다.<sup>58)</sup>

### 3) 石瘕

《葉天士女科》에서는 石瘕의 경우 壯盛한 夫人은 半年 후에 저절로 낫게 되고 虛弱한 婦人은 반드시 腫脹을 이룬다 하였다.<sup>59)</sup>

## 6. 治法

治法에 있어서는 名稱에 구애됨 없이 대부분 養正積自除하는 方法을 쓰는 것에 동의하며 함부로 下法을 써서 正氣를 傷하게 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꼭 下法을 使用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疇을 살펴가며 점차로 조금씩 신중히 使用해야 된다고 하였다. 順氣를 위주로 하여 증상에 따라 活血, 消積의 治療法을 함께 사용하는데 반드시 그 虛한 것을 살펴 補法을 병행하여 正氣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였다.

## IV. 結論

1. 女性의 性器 및 그 주위의 腫瘍疾患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女性 下腹部의 腫塊에는 癥瘕, 腸覃, 石瘕, 血蠱 등이 있다.
2. 癥瘕는 臟腑의 眞氣가 虛弱한 狀態에서 飲食失調나 寒溫不調 또는 七情損傷을 겸하여 發生하는 것으로 모두 痰飲, 食積, 死血로 有形의 덩어리를 이룬 것이다.

53) 裴秉哲 : 前揭書, p.428

54) 李挺 : 前揭書, p.42

55) 傳青主, 葉天士 : 前揭書, p.203

56) 李挺 : 前揭書, p.43

57) 許浚 : 前揭書, p.169

58) 傳青主, 葉天士 : 前揭書, p.203

59) 上揭書, p.203

3. 腸覃과 石瘕는 주로 寒邪로 인한 血凝에 의해 발생한다.
4. 血蠱는 瘀血이 子宮에 뭉쳤거나 産後에 물이 혈과 저항하여 된 것이다.
5. 治法은 養正積自除의 원칙 아래 症狀에 따라 順氣를 위주로 하여 活血, 消積의 治療法을 행하며 그 虛한 곳을 살피 補法을 竝行한다.

## V. 參考文獻

1. 華佗 : 中藏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2. 巢元方 : 巢氏諸病源候總論, 北京, 昭人出版社
3. 陳自明 著, 薛立齋 註 : 婦人養方大全, 北京, 文光圖書有限公司
4. 陳自明 原著, 熊宗立 補遺, 薛己 校注 : 婦人良方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5. 虞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6. 朱丹溪 : 新編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3.
7. 李挺 :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0.
8. 龔廷賢 : 萬病回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9. 朱橚 等 : 普濟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10.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11. 張介賓 :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8.
12. 吳謙 等 :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3. 裴乘哲 : 今釋 黃帝內經 靈樞, 서울, 成輔社, 1995.
14. 傳靑主, 葉天士 : 傳靑主男女科 葉天士女科, 서울, 大成文化社, 1992.
15. 金永勳 :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1995.
16. 張仲景 : 金匱要略, 서울, 醫學研究社, 1996.
17. 清錢松 : 辯證奇聞, 서울, 杏林書院, 1982.
18. 張寄文 : 婦科雜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19. 宋炳基 : 漢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1994.
20. 申鎮湜 : 比較 醫學的 側面에서 本癥瘕의 疾病에 관한 文獻的 考察, 東醫病理學會誌 Vol.1, 1984.
21. 梁秀烈 외 : 子宮筋腫의 治驗 1例, 大韓醫學會誌, Vol.11 No.1, 1990.
22. 梁秀烈 외 : 子宮筋腫의 治驗 1例 (II), 大韓醫學會誌, Vol.11 No.2,